

김수관 조선대 치과대학장 취임



김수관 조선대 제16대 치과대학장 겸 제2대 치의학전문대학원장 취임식이 10일 오전 치과대학 1층 대강당에서 전호중 총장과 배웅 광주시치과의사협회장, 박금석 치과대학 총동창회장 등 관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자랑스런 여수인’에 허영만·김미려

여수시는 10일 ‘2009 자랑스런 여수인’으로 만화가 허영만(62)화백과 개그우먼 김미려(27)씨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허 화백은 대표적 만화가로 ‘오! 한강’, ‘타짜’, ‘식객’, ‘꿀’ 등 다수의 작품을 발표했다.

또 개그우먼 김씨는 MBC 코미디 시트콤 부문 여자인상과 인기상 수상, 백상예술대상 TV부문 여자예능상 수상 등 개그, 가요, 뮤지컬, 드라마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재다능한 연예활동으로 고향의 이름을 드높인 공을 인정받았다.

시상식은 오는 10월 15일 전남경기장에서 열리는 여수시민의 날 기념식장에서 거행된다. /동부취재본부=박금규기자 ykpark@

광주 북구청, 국가생산성 혁신대회 대상

광주 북구(청장 송광운)가 제33회 국가생산성 혁신대회에서 미래경영 부문 대상을 받았다.

북구는 10일 “지식경제부가 주최하고 한국생산성본부가 주관하는 국가생산성혁신대회에서 미래경영 부문 대상에 선정돼 오늘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지식경제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북구는 ‘북구비전 365오픈인 그들’과 ‘동네한바퀴 주무순철단’을 조직해 다양한 계층의 행정 참여와 정책 제안을 이끌어 내는 등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다수 입안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종현기자 golee@kwangju.co.kr

전남대 박석호·제홍모씨 인명사전 동시 등재

전남대 로보틱스연구소(RRI)의 연구원이 2명이 동시에 세계 인명사전에 등재된다.

전남대는 10일 박석호 교수와 제홍모 선임연구원이 동시에 세계 인명사전 ‘마르퀴즈 후즈후 인더 월드 2010년도’에 등재가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중 박석호 교수는 로봇제어, 의료로봇 분야에서 SCI급 논문을 포함한 국내외 학술지 및 저명 국제학회에 50편 이상의 논문 발표했다. 제홍모 선임연구원은 컴퓨터비전, 영상처리, 지능형멀티미디어, 로보틱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내외 학술지 및 저명 국제학회에 30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했다. /채희종기자 chae@



박석호 교수 제홍모 연구원

‘2009 광주 아시아 인권학교’ 참가 인도 레닌 라호바니쉬씨

“亞 민주주의 확산 한국이 제역할해야”

“진정한 민주주의는 종교, 카스트제도에 구속됨 없이 모든 국민이 비폭력 제도 아래 자신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8일 광주시 북구 용봉동 전남대학교 법과전문대학에서 만난 인도 출신 레닌 라호바니쉬(39·Lenin Raghuvanshi)씨는 민주주의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5·18 기념재단 주관으로 열린 ‘2009 광주 아시아인권학교’에서 지도자 과정을 이수 중인 레닌씨는 지난 2007년 광주 인권상 공동 수상자이자 인도 인권단체인 ‘PVCHR’(People's Vigilance Committee on Human Rights·시민인권감시위원회)의 대표다.

광주 방문이 두 번째인 그는 ‘5·18 민주항쟁’이 아시아 여러 국가의 민주화 운동에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고 했다. 민중에 의해 이뤄진 투쟁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그가 유독 관심을 갖고 듣는 과목도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 부문이다.

국민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길러주기 위

해서다. 그 힘의 원천이 바로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이라는 것이다. 인도에서 브라만(사제·교사)과 크샤트리아(귀족·무사)를 제외한 하위계층과 여성은 정상적인 교육을 받을 수 없다. 카스트제도(caste) 때문이다.

카스트제도는 힌두교 특유의 신분제도로 사 람을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야(농공업), 수드라(노예) 네 계층으로 나누고 계급별 수직 이동이 불가능하게 해 통치가 쉽도록 만든 것이다.

그는 “내가 초등학교 다닐 당시 우리 반 학생수가 40명이었는데, 이 중 2명만 정상적인 교육을 받았다. 나머지 다른 학생들은 학생명부에만 올라와 있을 뿐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했다”며 “카스트제도는 인도의 민주주의를 저하하는 악습”이라고 말했다.

그가 고된 인권 운동가의 길을 걷게 된 이유 중 하나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에 대해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았다. 100점 만점 중 30

점이라는 것이다. 그는 “현 정권이 들어서면서 국가와 국민 간 소통 부재 등 오히려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며 “민주주의의 기본이 소통인데, 국민의 소리를 잘 들어려고 하지 않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민주화의 역사를 새로 쓴 5·18 민주항쟁 세대의 역할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다. 그는 “몰이 고이면 썩게 마련이다. 한국이 민주화를 이뤄내긴 했지만 이를 아시아 여러 나라에 전파하려는 노력은 부족한 것 같다”며 “이제는 눈을 돌려 한국의 민주주의를 적극 전파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레닌씨는 지난 1994년부터 인권단체인 ‘PVCHR’의 대표를 맡으면서 카스트제도 폐지 등 인도의 민주화를 위해 노력해온 점을 인정받아 광주 인권상을 받게 됐다.

/이종현기자 golee@kwangju.co.kr

/사진=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신문 스크랩 하면서 세상 보는 눈 길렸어요”

광주 출신 성남외국어고 김민희양

12년간 쓴 일기 묶어 책으로 펴내

외국어고등학교생이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쓴 일기를 엮어 책으로 펴냈다.

주인공은 경기도 성남외국어고등학교 3학년 김민희(18)양.

광주 출신인 김 양은 초등학교(염주초등학교·화계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중학교(광주중학교)를 거쳐 현재에 이르기까지 12년 동안 쓴 일기를 묶어 ‘외고생 민희의 생각기움 노트’(362페이지·도서출판 리브리언)란 제목으로 책을 펴냈다.

김 양은 일기를 통해 학교생활과 외국여행에서 느낀 점, 가족에 대한 고마움, 사회현실에 대한 직관력과 ‘어린 나’에도 ‘성숙한’ 역사관을 숨김없이 보여주고 있다.

김 양은 초등학교 1학년 때 쓴 일기에서 “정주영씨가 통일을 위해 소 500마리를 보내는 장면을 TV로 보며 감탄했다. 다음에는 정주영씨처럼 북한 백두산에서 야호! 해야지”(1998년 6월19일)라고 썼고, “소년소녀가장 돕기 프로그램을 보면서 나도 의젓하게 집안일을 도와야겠다”(1999년 1월16일)고 다짐했다.



김 양은 “수학을 잘하려면 예습과 복습을 잘해야 한다”(2000년), “신문에는 유익한 정보가 많다는 것을 알았다. 신문 스크랩을 하고 내 생각을 적으며 깔끔하게 정리하는 과정에서 세상을 보는 눈을 기르고, 비판능력을 길러 준다는 생각이 들었다”(2001년)며 평범하지만 쉽지 않은

학습법도 공개했다.

지금까지 7차례 외국여행을 통해 일본과 태국, 중국, 베트남, 이탈리아, 스위스 등 9개국을 다녀온 김양의 꿈은 외교관이다.

어머니가 광주시청 공무원인 김 양은 10일 “역사는 기록한 사람의 것이라고 해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의 생명력 강한 삶에 관한 책을 써보고 싶었다”고 말했다. 김 양은 “내가 커으면서 겪은 ভাল 일, 잘못된 일의 기록이, 나 무가 구부러질 때 지지대를 대어주듯이 나를 바르게 잡아주는 지시대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일기의 소중한 가치를 상기시켰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대 출신 10명 공인회계사 합격

최고 발표된 제44회 공인회계사 시험에서 전남대 출신이 10명 합격했다.

전남대는 10일 이번 공인회계사 시험에서 강정수(경영99), 김대영(경영01), 김선희(경영02), 김준하(경영98), 박영익(경영99), 안선희(경영03), 이철주(경영99), 홍정욱(경영

98) 등 8명이 합격했으며 김진옥(경영 01), 정재윤(경영 02) 등 졸업생 8명과 김진옥(경영 01), 정재윤(경영 02) 등 재학생 2명이 합격했다고 밝혔다.

전남대는 또 최근 미국 공인회계사시험에서도 2명의 합격자를 배출하기도 했다.

전남대는 회계사 시험 준비생들을 위해 학교 안에 경사원을 운영, 적극적인 지원과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이에 2007년 11명, 2008년 13명 등 해마다 10여 명이 넘는 합격자를 꾸준히 배출하고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에 이희호 여사

고(故)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가 남편의 뒤를 이어 사단법인 김대중평화센터 신임 이사장을 맡게 됐다. 김대중평화센터는 10일 임시 이사회를 열어 현 고문인 이 여사를 김 전 대통령의 서거로 공석이 된 이사장에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 여사는 취임 인사말에서 “고인이 된 남편의 유지를 받들게 돼 감사하다”며 “김대중평화센터의 설립 목적인 한



반도와 동아시아를 비롯한 세계평화, 남북의 화해협력에 위해 힘을 기울이며 빈곤한 이웃을 돕는데도 함께 힘을 보태자”고 말했다. 이 여사는 김 전 대통령의 총무비서관이었던 윤철구씨를 사무총장으로 임명했다. /연합뉴스



광운·대학생 홍보대사 영산강 생태 체험

은행원과 대학생들이 영산강 생태 환경을 체험하는 ‘그린로드’ 탐방에 나섰다. 광주은행은 10일 오전 9시 본점 정문에서 ‘영산강의 숨결을 찾아서’라는 테마로 그린로드 출정식을 갖고 영산강 발원지인 담양 용소에서 영산포에 이르는 영산강 생태 환경 탐험을 실시했다. <사진>

이번 탐방대에는 광주은행 창립 41주년을 맞아 젊은 은행원으로 구성된 광주은행 청년 이사와 인턴, 대학생 홍

보대사 등 41명이 참가했다.

탐방대는 용소에서 영산강 시원수(始原水)를 준비해 간 41개의 병에 담은 뒤 담양 생태하천 습지를 둘러보고 나주로 이동, 금성관과 완사천 등을 탐방했다. 이어 태조 왕건이 마셨다는 ‘왕건수’를 41개의 병에 담아 영산강 시원수와 합치는 합수식을 가진 뒤 이날 문을 연 광주은행 영산강녹색지점 개점식 참가자들에게 전달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 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062) 2200-628 FAX (062) 222-4938, 222-4918

화측

▲전병권(호남대 교수)씨 장남 준호군 정충길씨 사녀 선영양=12일(토) 오후 1시30분 삼무지구 예술의전당 3층(토파즈층)
▲박성기·전복순씨 장남 선우군 김양호·이만순씨 장녀 수진양=12일(토) 오후 3시 서울 교육문화회관 별관 1층(한강홀).
▲김대규씨 장남 진(화산 전남대 병원)군 양화영(전 광주시의회 사무처 공보담당) 차녀 은미(화산 전남대병원 간호사)양=13일(일) 낮 12시20분 메리엇웨딩홀 1층.

동창·동문회

▲송원과 제11회 동창회(회장 황명성) 월례회=11일(금) 오후 7시 낙지현마당. 062-381-5559.

▲석산고 제11회 동창회(회장 김형석)=11일(금) 오후 7시 마가마재우체국 건너편) 061-6622-2090.
▲북성중 제13회 동창회(회장 허건홍) 월례회=13일(일) 오후 6시30분 백운산 회관. 062-222-4569.
▲북성중 제12회 동창회(회장 서운호) 월례회=14일(월) 오후 6시30분 한우가(서광주 우체국 건너편) 062-373-2639.
▲조대부고 제15회 동창회(회장 장흥수) 월례회=15일(화) 오후 6시30분 임동후선아 IKC 3층 15회 동창회 사무실. 062-523-0015.
▲재광 전주상고 동문회(회장 서동철) 월례회=16일(수) 오후 7시 화사랑(오치동 한전앞) 010-4535-6688.
▲대동고 제14회 졸업 20주년 기념행사=19일(토) 오후 6시 신안파크호텔. 011-629-2730

종친회

▲한국범씨회 대중연합회(회장 최기후) 9월 정기월례회=11일(금) 금남로 5가 연합회 사무실 오후 6시30분. 062-236-3220, 017-603-6436.
▲곡부공씨 광주·전남 종친회(회장 공양진) 9월 월례회=14일(월) 오후 6시 문흥동 사랑방. 010-9112-9198.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 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광주동구건강가정지원센터 미혼(부)자 지원사업=위기지원(출산, 양육, 응급상황발생시 아이병원

비, 생활품), 상담, 정보제공 및 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서비스 지원. 062-234-5792(http://gjdongfc.familynet.or.kr/)
▲제5회 전국 댄스 스포츠 경기대회=12일(토) 오전 10시~오후 8시까지 광주대학교 체육관(주최: 대한댄스포츠허 경기연맹). 062-430-8046.

모집

▲광주 시사 영어 전문학원 고용보험 수강 모집=FREE TIME 제도, 담임제 관리, 매달 모의 토익 시험 실시, 소수 정예, 주말만 가능. 062-223-0582.
▲광주·전남 생태기능학교 학생모집=9월15일~11월5일(매주 화·목 오후 7시~9시) 광주 가톨릭 대학교 평생교육원 농업·농촌 농민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가능(Cafe.daum.net/landlovers). 062-373-6183.

▲아름다운경매 동호회 모집=기초부터 학습, 물건, 채권, 권리분석, 점유권, 유지권, 법정지상권, 공동분식, 현장답사 직장인 스터디를 통한 체계적교육. 011-607-4614.
▲사랑의 학교 문해 한글과정 자원봉사(여)교사 및 학생 모집=성인대회=12일(토) 오전 10시~오후 8시 까지 광주대학교 체육관(주최: 대한댄스포츠허 경기연맹). 062-430-8046.
▲전국아파트연합회 아파트 경비·설비원 모집=광주시내 아파트에 근무할 60~65세 경비원 수시로 모집. 062-236-0032.
▲김경자 국악학원 국악지도사 모집=국비지원 어린이 국악지도사 양성 모집. 011-617-7713.
▲우리문화 사랑회 회원 모집=전통문화를 애호하는 20세 이상 일반시민. 매월 24일 월례회 및 문화답사, 학술발표회 등 예정. 016-686-6491.

부음

▲배록순씨 별세 병기·병숙·병래·병해·병호·병선·덕오씨 모친상=발인 11일(금) 무등장례식장 101호. 062-515-4488.
▲정영심씨 별세 홍일식·은정·안나씨 부친상=발인 11일(금) 나라장례식장 402호. 062-670-4444.
▲남길순씨 별세 김홍경·장섭·현수·진숙·정숙·원숙씨 모친상=발인 11일(금) 무등장례식장 201호. 062-515-4488.
▲홍경운씨 별세 석원·홍선씨 부친상=발인 11일(금)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7분향소. 062-231-8907.
▲선병문씨 별세 재규(前문화부 교류협력과장)씨 부친상=발인 11일(금)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장례식장. 031-900-0444.

